

교계 복지시설 다양한 봉사자 모집

봉사, 긍정적 자아 발견 도와 교계 복지관, 봉사자 통합 관리

자원봉사는 자비와 나눔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만족과 기쁨은 덤으로 얻어지는 선물이다.

많은 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의 도와 보람을 느끼는 차원을 넘어 긍정적 자아를 발견한다. 삶에 의욕이 없거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를 권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참여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도움 될 수 있을까 등의 이유로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자원봉사활동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종류는 다양...조금씩 꾸준히 해야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재가봉사-홀몸노인 돌기, 소년소녀가장 돌기, 모자·부자가구 돌기 △사회복지시설봉사-양로원, 경로당, 영·유아시설 △전문봉사분야-외국어 지원, 기술지원(컴퓨터수리, 주택 개·보수, 자동차정비 등) △지역사회봉사-재해대책지원, 환경보전 활동, 농어촌 일손 돌기 △기관·단체 봉사-관공서 업무지원, 도서관, 의료기관, 사회단체 등 △기타-급품·물품지원, 범국가적 행사지원 등 다양하다.

자원봉사를 희망한다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안내 받는 것이 좋다. 봉사자가 필요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영상물·역사관 관람을 하고 할머니를 뵙고 노래를 불러준 나눔의 집 국제활동팀 자원봉사자들. 조계종자원봉사단이 발마사지 봉사를 하고 있다. 인덕원 치매노인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동봉사를 하고 있는 노보살의 모습.

한 각종 시설을 소개해 준다. 전국 시·도에서 운영하는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적합한 봉사처를 상담해 주고 있다. 또한 포털사이트로 지역·분야·기간을 설정해 검색하면 원하는 분야의 자원봉사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복지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관련 글을 게시하고 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과 노인돌봄시설, 교육 프로그램 등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또한 자원봉사를 선택할 때는 처음부터 의욕을 앞세우기 보다 조금씩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봉사를 선택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다.

불교계 복지기관에서 하고 싶다면

20000여 명의 봉사자들을 보유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02-723-5101)은 '조계종 자원봉사단'을 창시 모집하고 있다. 봉사자는 긴급재난구호봉사, 교육지원(인형 및 보조), 노년봉사(간병, 목욕, 배식, 이미용), 전문봉사(골프경력, 염불, 호스피스) 등에 배치 활동한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031-768-0068)에서는 자원봉사를 통해 역사공부도 하고 국제적 감각도 기를 수 있다. 나눔의 집은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도슨트 해설사 과정 △3.1절 및 일본군 '위안

부' 피해자 추모제 행사도유미 △나눔의 집 주변환경 정리 및 환경정화 분야에서 활동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어·일본어 통·번역 봉사자와 영상·사진촬영 재능기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인덕원종합복지센터, 은평노인종합복지관 등을 운영하는 **삼천사 인덕원**(02-3156-7500)은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노래교실, 종이접기,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노년봉사(식당보조, 청소, 말벗 서비스, 목욕, 간병) △전문봉사(의료, 간호, 이·미용, 발반사, 물리치료) 분야에서 활동할 봉사자를 창시 모집하고 있다.

인덕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봉사자는 기록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등록되며 실적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정기간 봉사해 요건을 충족한 봉사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상해보험에 가입되며 우수 자원봉사자는 표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031-898-1486)은 1999년부터 연꽃마을 각 시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수는 2만 3천 여명으로 노년봉사, 전문봉사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연꽃마을은 자원봉사자들의 자기증진과 봉사활동 활성화 위해 3240시간 이상 활동한 봉사자에게 법인주거시설을 무료입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2160시간 이상 활동자에게는 활동비 및 해외연수 지원을 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2년제 문화대학 설립...문화 역량 강화"

종로노인복지관, 2013년 신년 사업계획 발표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사진)은 올 한해 '융합' 모토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한다. 또한 '감성문화대학'을 설립해 어르신들의 예술문화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2월 1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복지관은 '장 담그기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지혜를 전수하고 세대가 교류하는 장(場)을 마련하는 한편, '감성문화대학'을 설립해 어르신들의 예술문화역량을 강화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정관 스님은 "그동안 복지관 어르신들이 관내에서 활동을 했다면 올해에는 외부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담그기로 이웃에 환원

우울감 완화 프로그램도 실시

'장 담그기 사업'은 전통 장을 담가온 어르신과 젊은 세대들이 짝을 지어 장을 담그고, 전통 장맛을 찾아 견학 활동을 하는 전통 계승의 자리로 마련된다. 오는 3월 5일 요리연구가 한복려씨를 초청해 장을 담그고 숙성된 장은 주변 소외이웃과 나눔 계획이다.

올해 설립되는 '감성문화대학'은 2년제로 운영되며 △미디어 전공 △연극전공 △음악전공으로 구성된다. 미디어전공학과는 영상작품을 기획, 촬영, 편집해 미디어물을 생산하는 학과이며, 연극전공학과는 연극의 기본기를 학습해 공연무대를 만들게 된다. 음악전공 참여 어르신은 합창의 기본기를 학습해 공연무대에 서게 된다. 감성문화대학 입학 어르신들은 교양필수 과목으로 철학·미술·댄스 등 인문·문화아카데미를 수강하게 되며 단합



회, 봉사활동 등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 현재 서류심사 또는 오디션을 통과한 어르신 55명을 모집하는 중이다.

또한 복지관은 노인자원봉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1인 1봉사 운동'을 실시한다. 정관 스님은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자원봉사에 접근하도록 자원봉사 참여유도 캠페인을 열고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청소, 말벗지원 등 노노(老老)케어에 참여해 복지관 소속감과 책임감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울증세를 보이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 '이웃사촌'으로, 복지관은 우울감이 있는 홀몸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는 과정을 통해 이웃관계를 형성해 건강한 노년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복지관은 '오라차차, 마을 운동회'를 오는 6월 중 개최해 복지관 이용어르신과 주민들이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극단 '빨래터'와 실버밴드모임인 '상상밴드'는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사회에 선보인다. 또한 올 1월에 개점한 고령자기업 '플러스스캐프' 종로구점에는 실버바리스타 7명을 고용해 어르신의 노년기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 복지재단, 봉사팀장 임명식

800여 봉사자 화합도모...정법 스님 진흥위 위원장으로

무주상보시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2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조계종자원봉사단 봉사팀장 임명식 및 진흥위원회의 위촉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62개 팀으로 구성된 조계종 직할자원봉사단의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각 팀의 조정자이자 중간매개자로서 단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는 봉사팀장 임명식이 진행됐다.

또한 꾸준한 봉사를 통해 2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2000시간, 3000시간 이상 보살행을 실천한 봉사자에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발급된 우수봉사자 인증 배지를 수여했다.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재단은 정법 스님(대구불교호스피스센터지회의 지도법사)을 조계종자원봉사단 진흥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불교계 자원봉사활동의 정책 개발 및 방향성 제고 등을 통해 불교계 자원봉사활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간다.

위촉식에서 정법 스님은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느꼈던 고충이나 방안들을 행정에 반영해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꾸준히 자비나눔 실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를 격려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9988백수연(百? 笈)' 열렸으며, 효지어린이집 원아들의 재롱잔치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로 구성된 '상상밴드' 공연도 선보였다.

조계종 자원봉사단 단장 원경 스님(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은 "많은 손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이 조계종 자원봉사단 봉사팀장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눈으로 많은 자비를 나누는 천수천안관세음(千手千眼觀世音)의 자비나눔 실천사상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긍지를 느끼며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계종 자원봉사단은 2012년 한 해 동안 150여 개소의 활동처에서 800여 명의 봉

사가자 무주상보시의 생활화를 통해 사회 곳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왔다. 그 결과 '2012 전국자원봉사자대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2012 서울시 봉사상' 단체분야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불교자원봉사활동의 공로를 인정받고 대내외적으로 불교사회복지의 저력을 널리 알렸다. 이나은 기자

수채화·연극에 관심있는 어르신 모이세요

안양노인복지관, 연극·수채화반 모집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양숙)은 연극 및 수채화 활동에 참여할 어르신들을 모집한다.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해울연극반'과 '수채화반'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주관하는 2013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다.

복지관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3-12월 9개월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연극반은 △연극관련 현장체험 △동선 및 발성법 습득 △연극 발표회 등으로 구성되며, 수채화반은 △

수채화의 기법습득 △수채화 관련 현장 체험 △전시회 등으로 진행된다.

해울연극반은 2006년부터 활발한 활동으로 제1회 거창 실버연극제 단체대상 수상, 제2회 거창실버연극제 단체대상 등 5관왕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복지관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연극'이나 '수채화'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경험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에게 특별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31)455-0551 발표회 등으로 구성되며, 수채화반은 △ 이나은 기자



생활속의 불법수행 ⑥

생활속의 불법수행은 현대불교신문 광고지면을 통해 부처님 법을 널리 홍보하는 지면입니다. 불자개인, 단체, 사찰 누구라도 소정의 정성금으로 부처님의 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광고부 02(204)-8213.4

꿈 그림자 영화장면 그리고 현상



꿈을 꾸다 꿈 속에도 사물·경계가 다 있다. 나도 있고 대상도 있고 사건도 있다. 경험자로서의 느낌도 있다. 눈물이 있고 공포가 있고 기쁨과 웃음도 있다. 깨어보면 분명 꿈인데도 생시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보고 듣고 움직이고 느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꿈과 생시는 어떻게 다른가. 꿈은 다만 그렇게 느끼는 허상이고 생시는 실제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한다면 가상 상식적인 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금강경은 말한다. "형상이란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닌 줄 알면 바로 여래를 볼 것이다" 라고. 보이고 들리는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니고 허망한 것이 라면 꿈속의 형상과 하등 다를 바 없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시라고 하는 시간도 실은 꿈 속이라는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생시로 알고 있는 이 꿈에서 다시 한번 깨어나야만 한다는 말인가

영화를 본다. 스크린에 비친 온갖 형상이 자못 현란하다. 주연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 사랑과 증오, 희노애락 등이 마치 현실처럼 여겨진다. 박수를 보내고 눈물도 짓는다. 그러나 스크린에 비친 영상은 빛과 필름이 합성해 낸 허상이지 실상은 아니다. 실상인 촬영현장은 이미 지나가고 없다.

우리가 꿈에 겪는 형상과 스크린 상의 영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생시에 보는 형상도 스크린 상의 허상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생시 또한 꿈 같고 영화장면 같은 것에 다를 바 없다.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실제 한다고 믿는 이 현상계는 꿈·허공·꽃·물거품·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한다. 꿈도 꿈이고 생시도 꿈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스크린에 비친 영상 속에서 그림자 배우들처럼 사랑하고 미워하고 울고 웃는

있는 셈이다.

안·이·비·설·신·의에 비친 모든 현상들이 참이 아니요 허상인 줄 알면 바로 여래를 볼 것이다. 즉 깨달음의 자리에 든다고 했다.

하지만 보고 듣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가? 모든 현상, 형상은 의식의 투영,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화면에 띄워진 영상이 다름 아닌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필름의 조각에 의해 만들어지듯이 현실의 모든 현상도 의식·마음의 변화에 의해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림자·거품 같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은 단지 나의 업적이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만들어 낸 꿈 같은 영상이니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현상이 실상이 아닌 허상인 것을 아는 주체, 경험자 또는 지켜 보는 자, 관찰자는 누구인가? 그런 꿈 같은 현상을 나타내게도 하고 사라지게도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화면의 영상은 빛을 비추므로써 나타난다. 그러나 빛은 그저 비출 뿐 영상을 조각하지 않는다. 화면의 상이 갖가지로 달라지는 것은 빛 때문이 아니라 필름에 인화된 모양 때문이다. 현상계의 갖가지 영상도 마음 의식의 무늬 때문이다. 빛은 그저 비출 뿐이다. 빛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나타내게도 사라지게도 하는 근원의 빛-바로 찰나요, 영원한 생명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것을 믿고 잊지 않는 것이 불법공부의 바른 길이다.